嬰·育児施設의 現況과 問題点

朴 勇 煥 / 漢陽大建築科教授

1 序

기존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영·육아시설 역시 시설문제 그 이전에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행정적 측면과 사회일반의 의식문제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시설공급의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또 한편으로는 복지수요의 양적증가는 물론 다양화하는 경향은 시설의 역할이나 기능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요보호아동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없는 3세 미만의 아동을 수용·보호하는 嬰児施設과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수용·보호하는 육아시설은 그 기능이 단순한 수용·보호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건물의 노후화, 전문종사자의 부족 및 전문적인 아동상담의 결여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비활성적인 요인은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행정적이며 제도적인 측면과 함께 결국 시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다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비단 이러한 점은 영·육아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쳐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그 해결책의 종합적이며 다면적인 접근을 중요시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설문제가 건축계획상 사회 타분야와 관련됨을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이 그 계획상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嬰·育児의 一般的인 特徵

서울시 소재 嬰児施設 1개소, 육아시설 5개소 및 경기도 소재 嬰児施設 1개소, 육아시설 2개소에 수용·보호된 嬰·育児 전체로서 嬰児 137명, 육아 422명, 총 559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그림-1·그림-2와 같으며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① 성별 : 嬰児施設인 경우 여자가 전체(137명)의 60.50%(83명) 남자가 39.41%(54명)로서 여자가 남자 보다 많은 반면 육아시설은 남자가 전체(422명)의 58.29%(246명), 여자가 41.71%(176명)로 남자가 여자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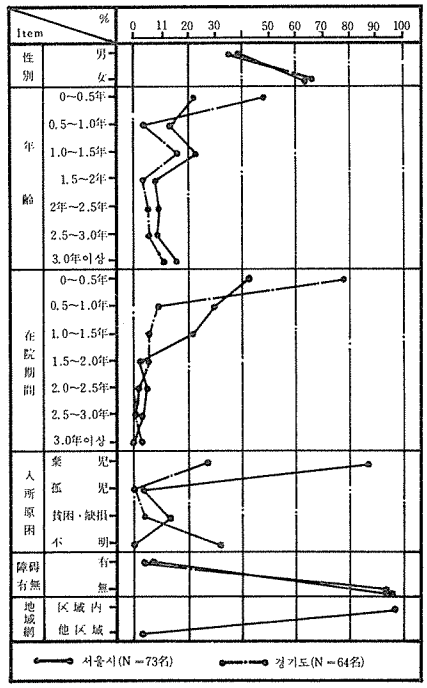
② 연령 : 嬰児施設에 수용·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연령은 0~6개월 미만 사이의 연령층(34.31%)이 가장 많으며 또한 現嬰児施設의 이용이 불가능한 3세 이상의 아동도 전체(137명)의 15.33%(22명)나 차지하고 있다. 육아시설의 아동은 국민학교 취학연령인 6~11세 사이가 전체(422명)의 37.20%(157명)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18세 이상의 年長児도 9.95%(42명)나 포함되어 있다.

③ 학년 : 육아시설 전체(422명) 이용자의 45.73%(193명)가 국민학교에, 중학교에 22.99%(97명), 고등학교에 17.30%(73명)가 재학 중이며 미취학 아동이 11.13%(47명)로서 육아의 연령과 비교하여 보면 학년에 비해 비교적 연령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육아시설에 수용 불가능한 아동도 2.84%(12명)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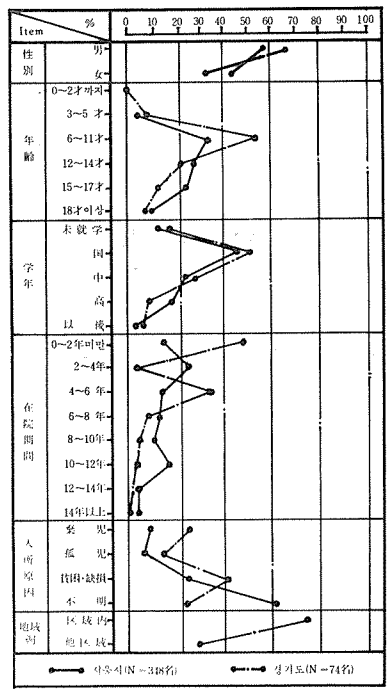
④ 在院期間 : 嬰児施設의 경우 재원기간 0~6개월 미만 사이의 嬰児가 59.12%(81명)로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육아시설의 경우 서울시가 재원기간 2~4년 미만의 아동이 전체(348명)의 22.70%(79명)로 가장 많은 반면 경기도는 0~2년 미만 사이의 아동이 가장 많아(48.65%) 경기도 지역의 최근 수용아동수가 서울시에 비해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⑤ 入所原因 : 嬰児시설의 경우 기아가 59.85%(82명), 빈곤가정아나 결손 가정아가 8.03%(11명), 고아가 0.37%(1명)로 나타난 반면 육아시설의 경우 빈곤·결손가정아 27.47%(116명), 기아 10.19%(43명), 고아 8.06%(34명) 순으로 나타나 嬰·育児시설간의 입소원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障碍如否 : A·B 시설 조사대상



〈그림-1〉 영아시설 이용자의 특성



〈그림-2〉 육아시설 이용자의 특성

자 전체(137명)의 8.03%(11명)가 심신장애를 지니고 있어 嬰児시설에 대한 기능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⑦ 地域網 : 경기도 소재 육아시설(안홍보육원·파주보육원) 전체(74명)의 28.8%(21명)가 타행정구역(인접市·郡)에서 수용·의뢰받은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嬰·育児 関連施設 등

嬰児시설과 육아시설에 이용자들이 출현하기 까지의 과정 중 거치게 되는 중간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의 기능 및 역할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입양알선기관 : 우리나라의 입양알선기관은 홀트 아동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동방아동복지회·한국사회봉사회 등 4개의 기관이 있고 각 시·도에 입양위임기관이 있다. 이러한 입양알선기관은 전국 주요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조직망을 통하여 기아·미아·가출아·부랑아·빈곤가정아·결손가정아 및 미혼모들과 상담을 통해 아동을 일시 보호하기 위한 일시보호소(홀트 일시보호소·대한사회복지회 일시보호소·한국사회봉사회 일시보호소)을 설치·운영하고 기아 일시보호소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과 유착하여 아동을 국내외로 입양시키고 있다.

② 파출소·경찰서 : 전국 도처에서 발견되어 신고되어지는 기아·고아·미아·가출아·부랑아 등이 수용시설이나 일시보호시설에 수용 및 보호되기 전 거치게 되는 기관으로서 서울시의 경우 신고된 아동은 연령 및 성격에 따라 기아일시보호소·시립아동병원·시립아동상담소·마리아수녀회 등에 보내지게 되며 경기도의 경우는 발생아의 연령에 따라 嬰児시설이나 입양알선단체·시청·구청 등에 보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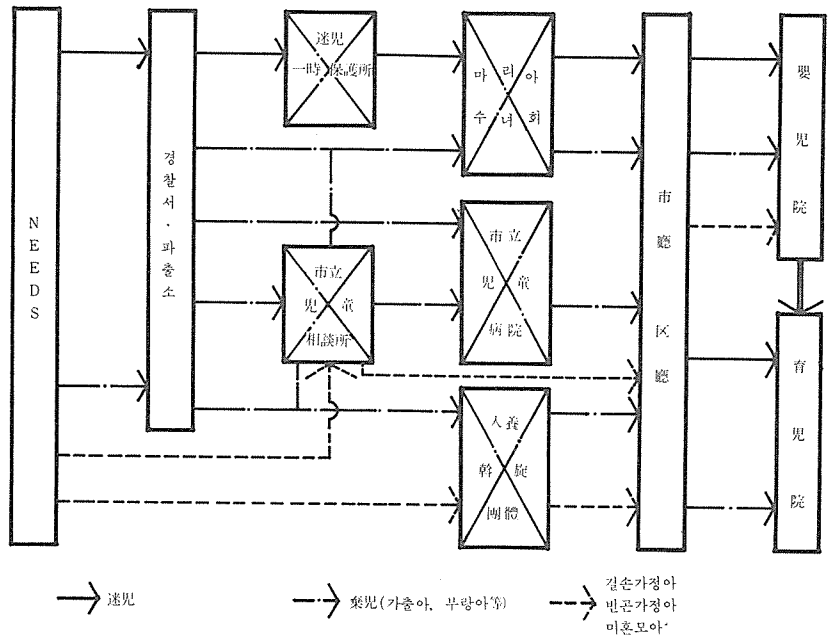
③ 서울시립아동상담소 : 상담소 내 상담조사부·판정지도부·일시보호부의 부서를 설치·운영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문행정 및 상담업무 전문지도 및 교정업무, 일시보호 및 조치업무 등을 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신고자·파출소·경찰서·아동복리지도원 등에 의해 발견 신고되어지는 要保護児童 및 미혼모·빈곤가정아·결손가정 등과의 상담을 통해 아동을 판별하여 귀가조치 및 연고자 인계, 국내 외입양, 가수용 및 일시보호시설에의 수용·보호 의뢰, 문제아동에 대한 교정치료 및 일시보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④ 시립아동병원 :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이 시설은 신체장애아동의 특수교정교육 및 18세 미만 아동의 치료, 3세 미만의 기아·미아의 일시보호 및 수용, 가족이나 연고자인계, 각 嬰児 수용시설로의 인계 및 입양추진의 기능을 행하고 있다.

⑤ 서울시청·구청 및 경기도 시청·군청 : 서울시청의 경우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 嬰児시설과 육아시설의 관리 통제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시설에 출현하게 되는 모든 아동은 서류상 이곳을 경유하게 되어 있다.

즉 수용시설측에서 매월 시청 및 구청에 시설자체의 인원현황 및 入·退所 現況 등을 보고하면 이에 따라 관련기관 및 중간시설에 대기중인 대상아동은 연령·성격·지역문제·학교문제·시설의 관리·운영면에 따라 각 嬰·育児施設에 수용을 명하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는 신고자·파출소·경찰서 등의 신고 및 관련 시설의 수용의뢰를 받으면 시청이나 군청의 부녀아동과에서 관할 지역 내 시설에 수용을 명하게 되며 관할구역 내 해당시설이 없는 경우는 인근지역의 타 군이나 시에 수용을 의뢰하게 된다.

⑥ 마리아수녀회(어린이마을 소년의 집) : 서울시로 부터 수용 의뢰를 받은 남녀고아·기아·미아·가출아·부랑아에 대한 수용 및 일시보호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이 시설은 그 사업으로서 연고자 인계, 지방아동의 이송 및 시설전원 비정상



〈그림-3〉 관련시설 및 기관간의 상관관계

아동의 특별보호 및 기술훈련원으로의 전원 및 취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육아시설에 수용되는 아동의 대부분이 시설 및 서울시립아동상담소를 거쳐온다.

⑦ 적십자사 미아일시보호소 :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미아의 보호시설로서 3일간의 일시보호 후 가족이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기아로 취급하여 이전에는 아동상담소나 아동병원으로 인계하였으나 현재는 마리아 수녀회로 대부분 입소시키고 있다. 이상의 관련시설 및 기관과의 상관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3과 같다.

4 需要의 出現

그림-4는 嬰·育児施設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수요가 현재화하는 시설에의 출현과정을 도시한 것으로 여기서의 주된 Filter는 지역적인 면, 부모의 유무, 신체적·정신적 장애, 연령·성별·종교 등이다. 이러한 제요인 등은 각 출현과정에 따라서 형성되는 이용자의 Group 형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 Group의 성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Group A : 이 Group은 지역여부 혹은 부모의 유무, 연령에 관계없이 입양대상 아동으로서 구성된 Group이다.

② Group B : 3세 미만의 아동들로서 Group A와는 달리 서울시에서 발생한 수용대상아동 및 부모나 연고자가 있는 일시 보호아동들로서 구성된 Group이며 법적 연령의 초과 입양대상 제외아동 및 부모나 연고자가 있는 일시보호아동은 Group C·D·E로 전원되는 Group이다.

③ Group C : 4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령층으로 종교·성별의 요인에 관계없이 서울 시내에서 발생되는 입소아동으로 구성된 Group이며 전체 구성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④ Group D : 지역적인 면, 연령·종교 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Group C와 동일하나 타 Group과는 달리 수용아동 전원이 남자로만 구성된 Group이다.

⑤ Group E : 4세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Group이며 특히 타 Group과 다른 점은 구성원 전원이 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⑥ Group F : 성별·연령, 지역적인 면과는 Group C와 동일하나 마리아 수녀회를 경유하지 않은 아동들로서 구성된 Group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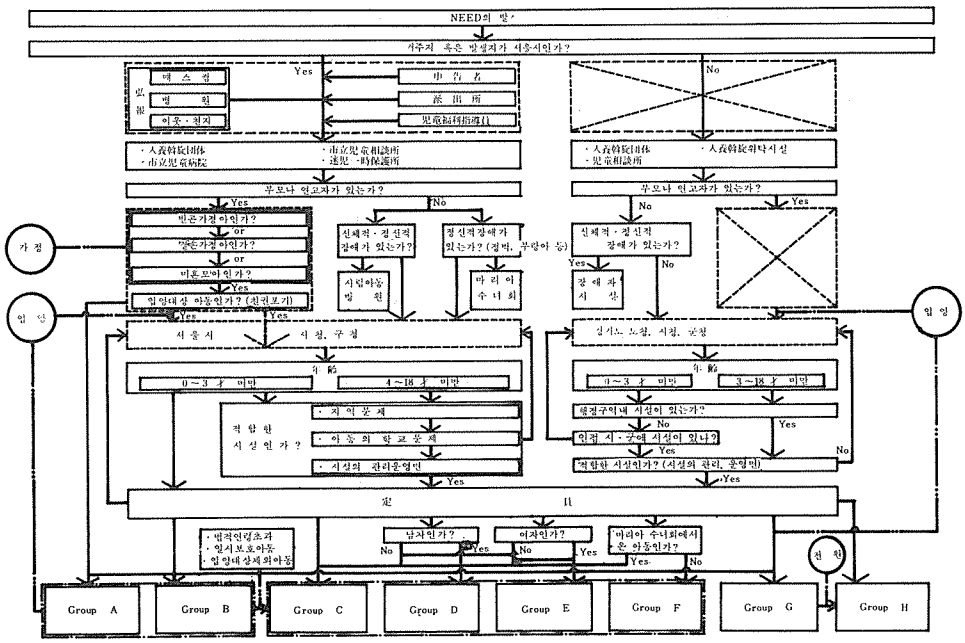
⑦ Group G : 경기도 내에서 발생된 3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Group이며 Group B와는 달리 전문적인 중간관련기관 및 시설을 거치지 않고 관할시청이나 군청에 전달되며 행정관할구역 내의 시설의 유무 등의 Filter에 영향을 받으며 법적 연령초과 입양대상제외 아동 및 부모나 연고자가 있는 일시 보호아동은 Group E로 전원되는 Group이다.

⑧ Group H : 경기도 내에서 발생되는 3세~18세 미만의 아동들로서 입소아동의 성격 중 부랑아 등의 문제아동이 Group B·C·D보다 다수 포함되어 있는 Group이다.

5 嬰児·育児施設의 役割

1976년 입양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른 要保護児童에 대한 국내외의 입양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嬰児施設의 수용 및 일시 보호아동들 대부분이 국내외로 입양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질병이나 수감 등 입양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아동들만이 법적 연령이 넘으면 육아시설로 전원되게 되었다. 이에 종래의 嬰児収容 및 일시 보호시설로서의 嬰児施設의 기능이 일시 보호시설로서의 기능상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嬰児施設→育児施設→社会라는 요보호아동의 전체적인 수용체계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嬰·育児施設의 이용 요인의 변화는 근래 嬰·育児施設 입소아의 입소원인을 살펴보면 과거 전쟁고아나 미망인 자녀와 같은 일원적 성격



〈그림-4〉 영·육아시설 이용자의 출현 Process 및 수요구조도

의 아동을 수용·보호 한다는 측면에서의 그것보다 가족결손이나 가정 파탄에 의한 기아·미아·가출아·부랑아·빈곤가정아·결손가정아 및 미혼모아 등 그 구성원이 매우 다면적 요인에 의한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같은 嬰·育児施設 구성원의 입소요인의 변화는 기능 및 역할 자체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하였다. 대부분의 嬰·育児施設이 전쟁고아 때문에 생겼지만 입소아의 연령 및 성격의 다양화에 따라 종래의 문제아동 및 심지어 심신장애아동까지 수용하는 현상을 빚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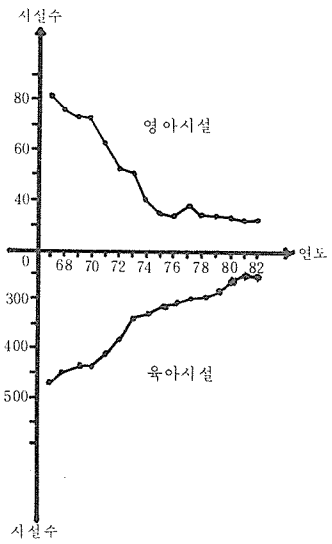
이에 아동복리법(1962년)과 소년법(1958년)의 제정에 따라 직업보도 시설의 위치·부랑아 일시 보호소의 확충, 아동상담소 및 아동병원의 설립, 심신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의 확충 등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위한 체계적 제도가 설립되고 이에 따른 아동복리시설의 체계화 및 기능의 강화가 미흡하나마 이루어짐으로 해서 嬰·育児施設은 정신적·신체적 결함이 없는 정상적인 아동들만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이는 외견상 嬰·育児施設 수의 감소는 물론 시설의 성격 내지는 수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서울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嬰·育児施設 및 관련시설에 대한 지역적 분포의 불균형 및 행정관할구역상의 문제를 알아보면 서울시의 경우 嬰·育児 수용 및 일시 보호시설과 이에 관련된 전문적 중간시설 및 제반사회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문제아동의 특징에 따른 분배가 비교적 가능하지만 경기도의 경우는 인천시 1개소, 수원시 1개소, 총 2개 嬰児施設만에 있어 위 지역외 시·군에서 발생하는 嬰児에 대한 시설까지의 전달체계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육아시설의 경우 지역에 따른 분포상의 차이 및 관련시설의 미비로 인한 대상아 특징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기능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시설 분포의 지역적 불균형과 행정 체계상의 문제는 기존 嬰·育児施設의 재편성 내지는 복합화 등에 의한 새로운 계획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제요인에 의해 나타난 시설 수 및 아동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그림-5·그림-6과 같다.

6 嬰児施設의 空間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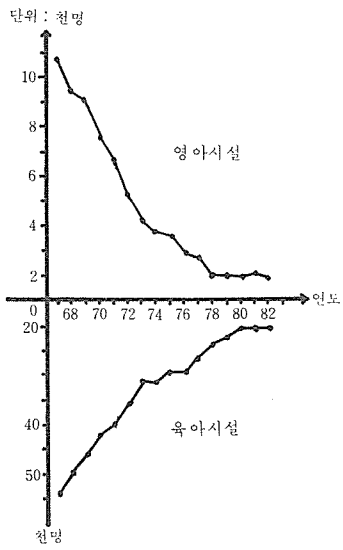
嬰児들의 생활행위에 따른 시설내의 공간구성에 대하여 유의해야 할 점은 일반 가정의 경우와는 달리 집단생활이 불가피한 점에서 아동은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것은 ① 실제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을 잃는 것과 ② 시설 자체의 환경에서 오는 영향을 들 수가 있는데, 嬰児期의 바람직한 양육, 깊고 친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성장하는 아동들에게 오랫동안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嬰児에게 "어떠한 환경이 바람직 하느냐"하는 것은 嬰児의 신체 지각적인 면은 물론 전반적인 발달수준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므로 시설의 공간계획은 嬰児들 스스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데 최대의 목표를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시설이 단순한 嬰児의 수용·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역할 혹은 적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장래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와 적극적인 교육을 위한 시설의 기능이나 공간구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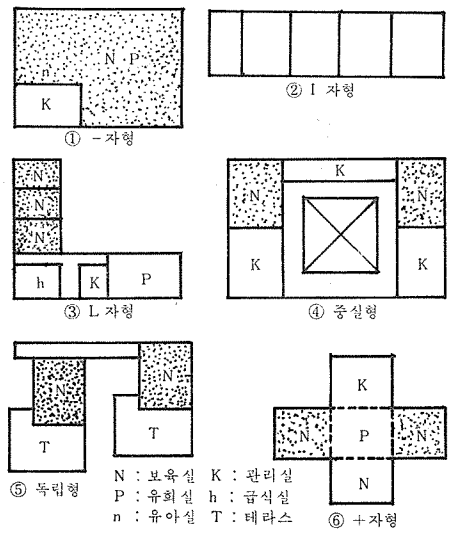
계획상 일반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요약하면 우선 시설의 입지조건상 일조·통풍이 좋으며 주위에 공장건물이 근접되어 있어서 유해가스나 매연 등의 공해나 자동차 왕래가 많거나 위험한 도로에 인접하여 교통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시설의 내부 공간구성 및 평면계획·설비 등은 嬰児 위주의 교육환경의 조성으로 嬰児의 사회성, 시설내에서의 생활이 공간에 의하여 그 영역이 방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복도나 보육실의 공간이 영아들에게 있어 친밀



〈그림-5〉 연도별전국영·육아시설수



〈그림-6〉 연도별전국영·육아시설 수용아동수



〈그림-7〉 평면형의 분류

감을 줄 수 있도록 적당한 변화를 주어 단조로운 공간구성을 피하고 시설의 내·외부 공간이 학습교재와 같다는 생각하에 그것이 연속적이며 상호보완적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육실·관리부분·급식부분·정원·놀이터 등을 적절히 구별해 주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단층건물의 室 배치가 바람직하나 실의 수직배치가 불가피할 때는 보육실·유희실·화장실의 각 실은 되도록이면 1층에 두도록 하며 피난상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림-7은 여러가지 평면형태를 분류한 것으로 그 특징에 대해 설명하면 ① 컴팩트(Compact)한 계획으로 기능적으로는 좋으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② 보육실의 向을 남쪽으로 배치한 형태로, 각 보육실은 다같이 채광이 잘되고 대단히 밝다. 또한 室과 室의 사이를 이동 칸막이를 이용하여 공간이용의 융통성을 추구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고 보육실 구성의 단조로움과 외부공간과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단점이 있다. ③ 관리실에서 보육실·유희실을 바라 볼 수가 있으므로 嬰児의 생활을 관찰할 수 있으며 유아부분과 幼児부분이 분리되고 채광도 좋은 편으로 건물과 외부공간 이용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가 있다.

④ 가운데 중정을 두어서 건물의 채광과 통풍을 좋게 하고 외부공간을 유아들의 놀이나 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⑤ 영아들을 연령이나 특징에 따라서 室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강조할 수가 있고, ⑥ 대단히 기능적이며 활동적인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반면, 각 室 상호간의 프라이버시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적인 분위기가 아쉬운 점 등의 결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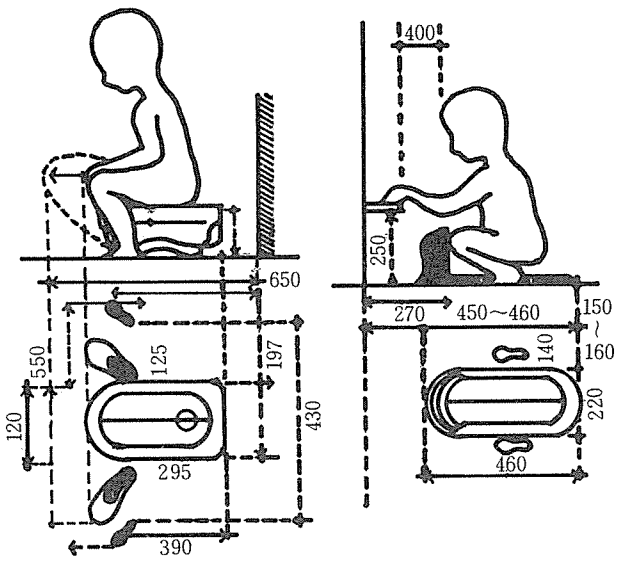
□ 보육실은 嬰児의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실로서 특히 보모에 의하여 영아의 연령이나 행위의 개별적인 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 하루 생활의 대부분이 약 3~4시간 간격의 수유와 수면 및 排泄의 반복으로서 침대와 아기의 보육에 필요한 여러가지 생활 필수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특히 환기 및 습도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1세 정도의 嬰児는 사물에 대한 반응이 보다 적극적이며 활발하게 되고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심한 호기심을 나타낸다. 이러한 시기는 대개 보행훈련 단계이기 때문에 개방된 유희장 보다는 보모의 보호 아래 포복이나 보행 등의 다양한 운동 능력을 연습하는 장소 및 자유유희를 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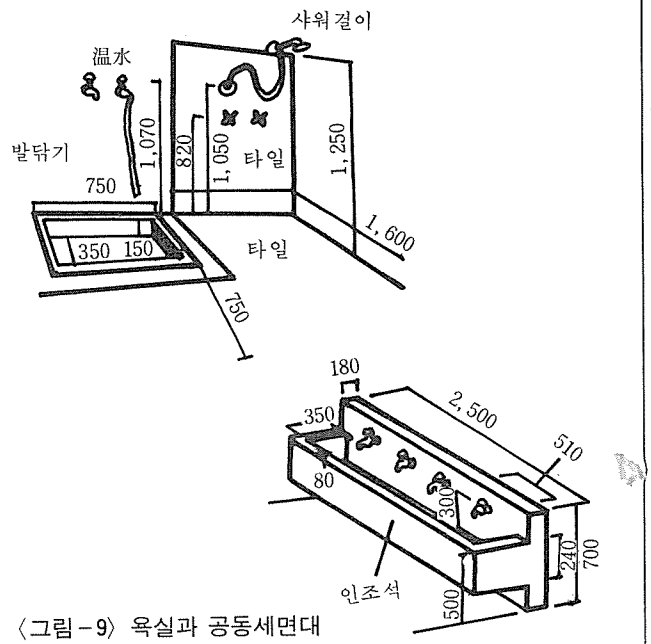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생아실이나 1세 정도의 嬰児 보육실은 보육공간을 크게 침실, 식사, 포복 및 유희 장소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침실공간은 이동식 침대를 설치하고 침대 주위에는 높이 30cm 정도의 난간을 만들어 영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창에는 커튼을 설치하여 취침할 때 실내를 약간 어둡게 한다. 식사공간의 바닥은 청소하기 쉬운 아스팔트 타일이나 플로링 바닥에 비닐카아펫을 깔아 준다. 영아용 식탁과 의자를 사용하여 서서히 올바르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며, 포복공간은 영아가 마음놓고 딩굴고 기어다니면서 몸 전체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양탄자나 부드러운 융단을 깔아준다. 기타 부속실로서는 일상적인 영아의 발육상태·건강관리를 기록할 수 있는 보모기록실과 우유나 이유식의 조리를 할 수 있는 조유실, 아기의 기저귀·속옷·의복 등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실, 오물처리를 할 수 있는 오물처리실과 특히 아기의 목욕시 아기가 정신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보모가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욕실이 필요하다.

2~3세가 되면 친구가 생기고 놀이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비중이 커지며 자유롭고 풍부한 활동을 하므로 마당이나 베란다 등 외부와 인접한 유희공간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그림－8〉 幻児用 便器치수(전국평균 5세이하 경우)



〈그림－9〉 욕실과 공동세면대

이 연령층은 자아의식이 강해서 집단 속에서의 단체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아이로 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즉 자유놀이 공간 및 책상·의자를 갖는 공간, 옥내유희를 할 수 있는 공간, 수납공간 등 각 기능에 따른 다양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보육공간은 영아의 활동과 휴식, 긴장과 해방 등을 고려해서 경험이나 활동에 변화를 갖게 함과 동시에 간식·낮잠·이야기·놀이·식사 등의 지도를 위한 설비나 교구 완구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

평면형태는 다소의 凹凸이 있고 고저차가 있는 바닥 그 밖에 여러가지 코너를 설치하여 단조로운 것을 피하고 늘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동시에 쾌적한 실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채광과 환기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재해시 원활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실내로부터 대피통로·계단·경사로 등 기타 안전을 위한 설비가 필요하다.

□ 유희실은 놀이나 유희의 기능과 연중행사나 단체를 위한 장소로서 리듬·음악·자유놀이 등과 수납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며, 학예회·예배·강연 등의 행사에 필요한 스크린 및 철봉·매트·뜀틀 등의 운동 용구도 상비하여 둔다.

바닥은 되도록 안전한 카펫트나 융단을 깔고 균일한 照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앙 천장에 천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희실은 그 기능상 소음이 생기게 마련이므로 보육실과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 보모실은 보모들의 휴식과 보육계획을 세우며 여기에 수반되는 도구나 교재를 준비하는 室로서 영아의 움직임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위치가 좋으며 방의 크기는 개인용품 및 서류 등의 보관을 위한 수납공간과 보모의 휴식 공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의무실은 언제나 청결하고 통풍 일광을 충분히 고려하여 친밀감을 주는 분위기에 조용하고 안정감이 있는 방이 되도록 한다. 嬰児의 건강관리를 위한 기기 및 신체검사용의 여러가지 計測機器 등의 설치를 위한 면적이 필요하지만 약이나 기구 등이 嬰児의 손에 미치치 않도록 배치방법에 유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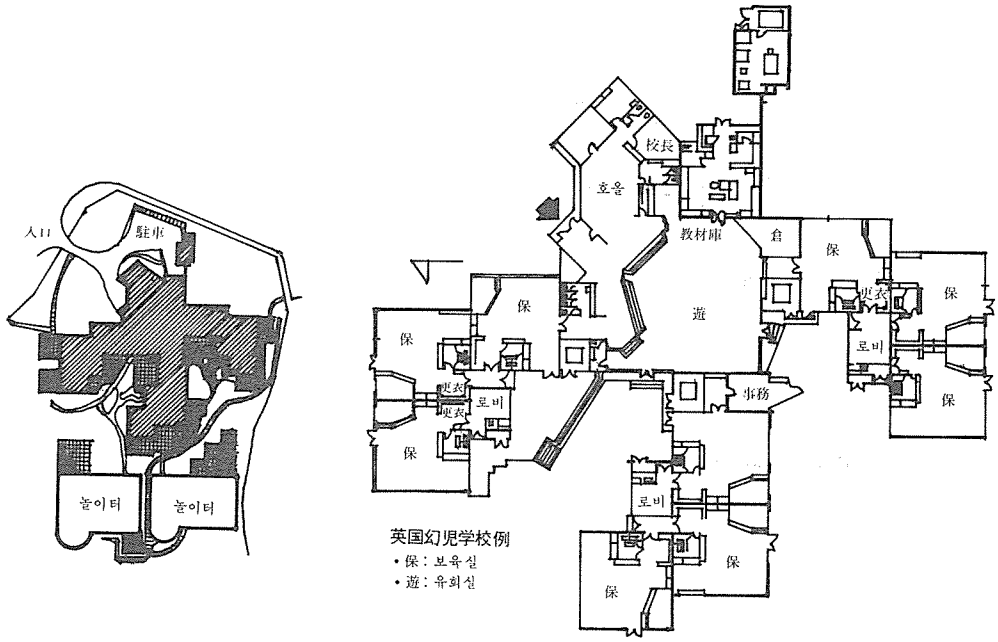
□ 화장실과 세면장—嬰児에게 용변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일은 놀이나 그림그리기 등의 학습과 함께 보육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화장실이나 세면장의 위치는 보육실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 보모가 늘 지켜보면서 지도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도록 한다. 계획시 유의할 점에 대해 열거하면 ① 수세식 설비로 하고 ② 바닥은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재료로 마감하고 보육실과는 단차를 없앤다. ③ 소변기는 밑의 고저차가 없는 스투울형으로 대변기는 소아용을 사용하도록 하며 조작은 손으로 하기 보다는 밟는 것이 좋다. (그림 8참조)

④ 화장실의 문 높이는 보모가 감시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열쇠는 달지 않는다. 세면장을 화장실 내에 설치할 경우는 되도록 보육실 한 구석에 낮은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여 보육실에서 직접 자유스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세면과 음료수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근처에는 각자의 타올걸이·컵·칫솔 등을 두는 선반과 거울을 설치하고 컵 선반은 일광을 쪼일 수 있도록 이동식의 가구로 해도 무방하나 되도록 남향의 테라스 부분에 썬－룸식으로 세면장을 설치하여 방안에는 일광이 들어오고 아울러 통풍이 충분히 되도록 해서 고정설비로 하는 것이 좋다.

세면이나 양치질을 한다는 것은 생활습관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적어도 5명마다 하나씩의 세면기를 배치하여 밝고 청결하며 충분한 넓이가 되도록 디자인 한다. 그림－9는 몸을 깨끗이 하는 코너와 세면장의 한 예이다.

□ 급식실— 이 실은 조리실·배선



실·사무실·식품고 등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조리실은 嬰児의 인원수·급식방법·조리종류 등에 의해 설비나 가구 또는 배치가 다르다.

일반적인 유의점으로서는 ① 밝고 청결할 것 ② 환기가 충분할 것 ③ 동선을 충분히 고려하고 여기에 설비가 충분히 배치될 만큼의 여유가 있는 넓이가 있을 것 ④ 방화에 충분히 유의할 것 ⑤ 외부로부터 벌레나 파리가 침입하지 않도록 방사문을 설치할 것 ⑥ 보육실과의 연결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등이 있다.

배선실은 배식차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첫째 조건이 되므로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넓이와 동선을 고려하고 급식선반이나 배식차·급식기구 등을 정리·격납할 장소도 필요하다. 사무실의 경우 조리실은 작업실이나 자재의 구입, 급식 기록 등의 작업을 위해 하나의 코너를 사무실로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영양사 급식계획을 세우는 작업장으로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급식작업시 서서 일하는 급식부에 대한 휴식장소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겠끔 여유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식품고는 식품의 종류, 저장방법 등에 따라 식품저장고와 조리기구의 보관고로 나누어 계획한다.

□ 기타 외부공간— 외부 공간은 嬰児의 실외 생활공간으로써 생각하여 기초적 운동이나 놀이·자연관찰 등을 할 수 있도록 미끄럼대·그네·모래놀이터·정원 등 이에 적합한 놀이기구의 설치 및 조경계획을 하여야 하며 또한 외부공간의 일부에 주차장 및 세탁물의 건조장·소각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結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嬰·育児施設에 관한 문제 역시, 일차적으로는 법·제도적·행정적인 기반이 시설공급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 우선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것들이 새로 검토되어야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시설문제에 있어서도 그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존 嬰·育児施設 역시 현실적으로 시설의 수요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은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嬰·育児施設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에 걸쳐 강구되어야 할 점으로 그것은 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단순히 양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특징이 일상생활상의 문제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내시간이 소중하면 남의시간 존중하자